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

10만 연등물결 빛으로 서울을 수놓다

동대문을 출발한 제등행렬은 종로 일대에서 시민과 외국인 등의 박수를 받으며 조계사까지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행렬로 장엄했다. 연등물결이 마무리된 오후 9시30분부터 종각사거리에서는 '회향한마당'이 펼쳐졌다. 연등회가 불교축제를 넘어 범국민적이고 세계적인 축제임을 증명하는 듯 시민과 외국인이 대거 참여해 신명나는 한마당을 함께했다.
김형주·신재호 기자



①대형 장엄등을 선두로 연등행렬을 시작하자 거리를 가득메운 시민들이 환호했다. ②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연등을 밝히며 평화와 자비의 참 뜻을 전했다. ③전통문화마당에서 스님을 따라 법고를 체험하는 학생. ④연등행렬에 동참한 슈퍼모델트오브더월드 참가자들. ⑤홍겨움으로 가득했던 동국대 운동장의 어울림마당. ⑥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전통문화마당에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 함께 활시위를 힘껏 당겼다. ⑦연등행렬선두의 오방변과 인로왕변이 한글로 새롭게 선보였다. ⑧행렬등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연등지혜상을 차지한 한마음선원연등. ⑨연등행렬에 동참한 베트남 불자들.

